

전남 카누 거침없는 '금빛 물살'

도체육회·도청·목포대 등 파로호배 전국대회 금 4·은 5·동 8개 획득

전남 카누팀이 파로호배 전국카누대회에서 금빛 물살을 갈랐다.

16일 전남도체육회에 따르면 최근 강원도 화천에서 열린 제20회 파로호배 전국카누경기대회에서 전남체육회 카누팀을 비롯한 전남도청, 목포대 등 도내 카누팀이 금메달 4개, 은메달 5개, 동메달 8개 등 총 17개의 메달을 획득했다.

전남체육회 카누팀은 남일부 k-2 200m에서 송지용·정유성 조가 33.131초로 결승선을 통과하며 다음달, 도쿄올림픽에 출전하는 이진우·조광희(울산광역시청)조를 꺾고 금메달을 목에 거는 기염을 토했다.

이어 k-1 200m에 출전한 정유성(36초357)과

k-1 500m에 출전한 정주환(1분47초1)이 각각 은메달을 획득했다.

여일부에서도 금빛 물살을 갈랐다.

임성화와 김소현이 호흡을 맞춘 전남도청은 k-2 200m에서 38초866의 기록으로 이하린·최란(부여군청, 39초339) 조보다 먼저 결승선을 통과하며 금메달을 획득했다.

이어 김소현, 이우진, 이한별, 임성화가 출전한 k-4 200m에서, 김소현과 임성화가 출전한 k-2 500m(1분49초8)에서 각각 은메달을 획득했고, 김소현, 이진솔, 이한별, 임성화가 호흡을 맞춘 k-4 500m에서 1분 40초 4의 기록으로 동메달을 획득하며 대회를 마쳤다.

남자 대학부와 남자 고등부에서도 메달 획득은 이어졌다.

목포대학교 카누팀 김경민은 남대부 c-1 500m에서 1분59초3의 기록으로, 신수복, 장원우, 전상훈, 최천희가 출전한 k-4 200m에서는 33초 746의 기록으로 한국체대(34초028)를 꺾고 각각 우승을 차지했다.

남고부에서는 전남체고 백경한·홍정현 조가 k-2 200m에서, k-4 200m 강민혁, 백경한, 조유빈, 홍정현 조가 각각 동메달을 획득했고 남중부 삼호중 박철용·박태준·윤승엽·이진솔 조는 k-4 500m에서 동메달을 획득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여일부 k-2 200m 우승 김소현(왼쪽)과 임성화.



남일부 k-2 200m 우승 정유성(왼쪽)과 송지용.

광주시체육회장 '무자격 투표 논란' 법적 절차 시작

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등 2건 심리...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 결과 나올 듯

광주시체육회장 선거에서 불거진 '무자격 유권자의 투표권 행사' 논란에 대한 법적 절차가 시작됐다.

광주지법 제21민사부는 16일 광주시체육회장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직무집행 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 신청 사건 등 2건에 대한 심리를 진행했다. 가처분신청은 긴급을 요하는 사건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제도다. 재판부에서 전갑수 광주시배구협회장 등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회장의 직무집행 등이 일정 기간 정지된다.

전 회장직 인수인단은 이날 '체육회에서 재판부에 제출한 답변서가 늦게 도착했다'며 이에 대한 보충 자료를 제출할 시간을 달라고 요구, 재판부가 이를 수용키로 하면서 심리가 종료됐다. 재판부는 해당 자료를 오는 22일까지 제출토록 했다. 이에 따라 가처분 신청 결과는 이달말, 다음달 초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법원이 심리할 핵심사안은 이른바 '승인 대의원

조항'과 광주시의 경우 300명 이상 선거인단을 구성해야 하는데, 284명으로 꾸려 정족수에 미달했다는 내용이다. 전 회장 등 체육회장 낙선거 2명은 우선 승인 대의원 조항을 체육회에서 자의적으로 해석해 대한체육회 선수등록 시스템에 등재되지 않은 46명(승인 대의원)에게 대의원의 자격을 인정하고 선거권을 부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제의 종목단체 규정(제6호 제3항)은 '대의원 수가 7명 미만이거나 대의원의 구성이 전문체육과 생활체육 중 어느 한 분야에 편중되는 등의 사유로 총회 구성이 곤란할 때에는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등록팀과 체육동호인조직을 포함하여 총회를 구성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단, 부득이한 경우 분회 승인을 받아 별도의 대의원을 구성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소수 종목 단체가 총회를 구성하지 못해 사업 등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규제하기 위한 단서 조항이다.

낙선거자들은 체육회가 이 조항을 잘못 적용했다

고 지적하고 있다.

같은 규정의 4항에는 '전문체육분야는 대한체육회 전문체육 선수등록시스템에 등록된 학생부 등록팀과 일반부 등록팀 대표나, 생활체육분야는 대한체육회 동호인선수등록시스템에 등록된 체육동호인조직 대표를 선임한다'고 자격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르면 3항의 단서조항을 적용하더라도 체육회 등록시스템에 등재된 대표로 한다는 전제 조건을 충족해야 대의원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의미다.

반면, '시체육회는 승인 대의원 46명 가운데 5명은 등록된 체육동호인 조직의 대표이고, 나머지 승인 대의원 41명은 등록되지 않은 체육동호인 조직의 대표로서, 종목단체 제6조 3항 단서 조항에 따라 시체육회에서 승인된 승인 대의원에 해당, 승인 대의원 46명의 자격에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박항서 매직' 계속

베트남, UAE전 패배에도 사상 첫 월드컵 최종예선 진출

'박항서호' 베트남 축구대표팀이 2022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지역 2차 예선 최종전에서 패했지만 조 2위 자격으로 역대 첫 최종 예선 진출을 확정했다.

박항서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 대표팀은 16일(한국시간)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의 자비스타디움에서 열린 UAE와 2022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지역 2차 예선 G조 최종전에서 2-3으로 석패했다.

베트남은 승점 17(5승 2무 1패)로 2차 예선을 마치면서 UAE(승점 18)에 G조 1위 자리를 내주며 2위로 내려앉았다.

이날 비기기만 해도 조 1위로 최종예선 직행 티켓을 따낼 수 있었던 베트남은 조 2위가 됐지만 각 조 2위 상위 5개 팀에 주어지는 최종 예선 '와일드카드'를 확보하면서 기어코 역대 첫 최종 예선 티켓을 풀었다.

북한의 불참 선언으로 2차 예선에서는 각 조 2위 성적을 산정할 때 최하위 팀과 결과를 제외한 '보정 승점'을 비교한다.

베트남은 최하위 인도네시아에 거둔 2승을 뺀 승점은 11점이다.

각 조 2위 가운데 3개 팀만 제외되는 상황에서 이미 2차 예선 일정을 모두 마친 레바논과 타지

키스탄(이상 승점 10)을 따돌린 상태다.

이런 가운데 B조 최종전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2위가 유력한 요르단(보정 승점 8) 요르단 또는 쿠웨이트 모두 베트남의 '보정 승점'을 넘을 수 없는 상황이어서 베트남은 최종예선 진출권을 품에 안았다.

박항서 감독이 경교 누적으로 이번 경기 지휘봉을 잡지 못하는 상황에서 베트남은 이영진 수석코치가 지휘에 나섰다. UAE의 파격 공세를 막지 못했지만 UAE의 파격 공세를 막지 못했다.

박 감독은 이날 경기에 앞서 "선수들이 비겁도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수비가 약한 만큼 다양한 전술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고, 결국 허술한 수비에 발목을 잡혔다.

베트남은 전반에만 2골을 내주며 일찌감치 무너졌다.

전반 초반부터 강하게 베트남을 몰아친 UAE는 전반 32분 베트남 진영 페널티지역 오른쪽에서 알리 하산의 강한 오른발슛으로 선제골을 따냈다.

전반 39분에는 모함마드 이드가 페널티지역 왼쪽으로 파고드는 과정에서 베트남 골키퍼의 손에

걸려 페널티킥을 따냈고, 전반 40분 키기로 나선 알리 마프투가 추가골을 넣었다.

전반을 0-2로 마친 베트남은 후반 5분 만에 마흐무드 카미스에게 결승골을 내주며 그대로 무너지는 듯했다. 하지만 베트남은 후반 막판 힘을 냈고, 후반 40분 응우옌 틴엔리의 추격골에 이어 후반 45분 쯔란 민부영의 득점이 이어졌지만 끝내 경기를 뒤집지 못했다.

/연합뉴스



16일 베트남축구협회가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동남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월드컵 최종예선에 진출한 베트남 대표팀에 축하를 보냅니다. 더 강해지세요'라는 축하의 글과 사진을 올렸다.

벤투호 마지막 관문 '험로'

월드컵 최종예선 9월 시작...7월 1일 조 추첨 톱시드 어려워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2022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지역 2차 예선이 모두 끝나고 최종예선 진출팀이 모두 결정된 가운데 벤투호는 조 추첨에서 사실상 톱시드가 어려워 쉽지 않은 길을 가게 됐다.

16일 마두리니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지역 2차 예선 결과 한국, 시리아, 호주,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일본, 아랍에미리트(UAE, 이상 조 1위), 중국, 오만, 이라크, 베트남, 레바논(이상 조 2위) 등 12개 팀이 최종예선에 진출했다.

아시아축구연맹은 이들 12개 팀을 대상으로 7월 1일 최종예선 조 추첨을 한다.

조 추첨은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에 따라 6개 포트에 나뉘어 진행된다.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상위 팀부터 차례로 1-6번 포트에 들어간다.

축구협회가 이날 아시아축구연맹(AFC)에 문의한 결과 포트 배정은 5월이 아닌 6월 FIFA 랭킹 기준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FIFA 5월 랭킹 기준으로 일본(28위), 이란(31위), 한국(39위), 호주(41위), 사우디아라비아(65위), 이라크(68위), UAE(73위), 중국

(77위), 시리아(79위), 오만(80위), 베트남(92위), 레바논(93위) 순이다.

5월 기준으로 따지면 한국은 2번 포트에 들어간다. 6월에 일제히 월드컵 2차 예선이 치러진 터라 FIFA 랭킹에도 변화가 생길 수도 있지만 사실상 크지 않을 전망이다.

한국은 이라크와 랭킹 차이가 8계단이나 나는 터라 현실적으로 극복이 어렵다. 한국과 이라크는 6월 월드컵 예선에서 모두 3연승을 따낸 만큼 순위 변화의 요인이 거의 없다. 이 때문에 사실상 일본과 이라크 1번 포트에 들어가고, 한국은 호주와 함께 2번 포트에 들어가 공산이 크다.

한국이 1번 포트에 들어가면 '낙조'로 꼽히는 일본과 이라크를 모두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2번 포트 배정되면 이라크 또는 일본과 반드시 만난다.

여기에 이라크를 제외하고 '침대 축구'에 능한 중동팀이 6개 팀이나 되는 것도 부담이다.

조 추첨 상황에 따라 한국은 이라크를 비롯해 최대 5개의 중동팀과 같은 조에 묶일 수도 있다. 자칫 '침대 축구와의 전쟁'이 될 수도 있다. /연합뉴스

'기록의 사나이' 호날두 유료 통산 11골 최다 득점



16일 열린 유료 2020 헝가리전에서 두번째 골을 넣고 달려가는 호날두.

'슈퍼스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36·유벤투스)가 만원관중 앞에서 유럽축구선수권대회(유로) 새 역사를 썼다.

호날두는 16일(한국시간) 헝가리 부다페스트의 푸슈카시 경기장에서 열린 유료 2020 조별리그 F조 1차전에서 헝가리를 상대로 멀티골을 몰아치며 포르투갈의 3-0 완승에 앞장섰다.

선발 출전한 호날두는 경기 막판에야 득점포를 가동했다. 허파 시우바(반피카)가 얻어낸 페널티킥을 후반 42분 성공시켜 포르투갈이 2-0으로 앞서나가게 했다.

이는 유로 역사를 다시 쓰는 골이기도 했다.

미셸 플라티니(프랑스) 전 유럽축구연맹(UEFA) 회장과 유료 통산 최다 득점(9골) 기록 공동 1위였던 호날두는 이 골로 이 부문 단독 선두로 올라섰다. 또 5개 대회 연속으로 득점에 이 부문 신기록도 썼다. 호날두는 유료 2004부터 이 대회에 개근하며 매 대회 1골 이상을 넣었다.

호날두는 후반 추가시간 시우바와 이데일 패스를 두 차례 주고받으며 골대 앞까지 전진하고서 골키퍼까지 제치고 왼발 슈팅을 꽂아 포르투갈의 3-0 완승에 마침표를 찍었다. /연합뉴스

LOTTE CINEMA | 총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컨저링3: 악마가 시켰다
2관	콰이어트 플레이스 2
3관	크루엘라
4관	루카
5관	여고괴담 여섯번째 이야기: 모교
6관	콰이어트 플레이스 2
9관	컨저링3: 악마가 시켰다
7관 씨네커플	콰이어트 플레이스 2, 루카, 클라이밍 극장판 귀멸의 칼날: 무한열차편
8관 씨네커플	루카, 여고괴담 여섯번째 이야기: 모교 분노의 질주: 더 얼티메이트, 캐시트릭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Steinway & Sons
Steinway Prizewinner
Concerts in Korea
2021 소프라노 리사이틀 조지

조지 오 피아노 리사이틀
TONY YUN PIANO RECITAL

06.26 19:30 롯데문화회관 소극장

GAC기획공연 포커스
토니 윤 피아노 리사이틀
일시 : 2021. 06. 26.(토) 19:30
장소 :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문의 : 062-613-8233

2021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뮤지컬 <캐터필러의 유령>
일시 : 2021.07.10.(토)-11.(일) 19:30, 일 15:00
장소 :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문의 : 062-613-8237